

가로수에 여전히 농약 살포하는 지자체

광주 5개 구청 지난해 어드마이어 살충제 등 14종 뿌려 인력·예산 핑계 무분별 살포...꿀벌 폐사 주범 농약 사용도 광주천 흘러들면 수생생물 중독 등 환경 파괴 우려 심각

광주 자치단체들이 동·식물 생태계를 위협하는 농약을 도심 가로수와 공원 등에 무분별하게 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농약을 장기간 사용할 경우 시민건강은 물론 광주천을 중심으로 번식하고 있는 수달(천연기념물 330호) 등 야생 동·식물의 생명을 파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자치단체들은 이런 지적에도 인력과 예산 등을 핑계로 수년 동안 농약살포를 고집하고 있다.

7일 광주시 5개 자치구(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가로수·공원에 어드마이어·로벡틴 등 병해충 방제 약제 14종을 뿌리거나 주사했다.

동구는 시설녹지 8곳(2만9624㎡)에는 로벡틴 7.5g, 스미치온 0.4g, 어드마이어 0.32g 등에 인체에 유해할 수 있는 농약을 뿌렸다. 동적골 산책로 1.5km 구간 가로수

에는 데시스 3600㎖, 코니도 5kg을 사용했고, 도로 화단 등 49km에는 스미치온 1만 2500㎖를 살포했다.

푸른길공원 등 10개 공원(8만9595㎡)에도 멸종대장굴드, 문도대장굴드 등 친환경 경유기농약 1만㎖를 썼다.

국립농업과학원 농약정보서비스에 따르면 로벡틴은 인축독성(인간·가축에 미치는 독성) 보통독성 3급, 어독성(수생생물에 미치는 독성) 1급은 분류돼 있다. 이들 농약 성분이 빗물에 섞여 하천이나 저수지로 흘러들어가갈 경우, 수생생물까지 죽을 수 있다. 환경단체들은 설명한다.

특히 이마다클로프리드를 주성분으로 하는 어드마이어 살충제는 인축독성 저독성 4급, 어독성 3급으로 분류됐지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 꿀벌의 신경계를 손상시키고 여왕벌의 증식을 억

제시켜 꿀벌을 폐사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이런 이유로 유럽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사용 금지했다. 같은 성분을 쓰는 코니도(저독성 4급·어독성 3급)도 마찬가지다.

서구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상무시민공원 등 공원 30곳(6872㎡)에는 코니도 1만 2㎖를 분사했고 상무중앙로 등 5개 노선 7km 구간 가로수에 어드마이어 1만4340㎖를, 매월유동단지(3km)에는 코니도 750㎖, 스미치온 1500㎖를 뿌렸다. 스미치온(저독성 3급·어독성 3급)은 과거 물고기를 잡을 때 썼던 농약이다.

남구는 푸른길공원·유안근린공원·블로어리안공원·봉선근린공원 등 5만9395㎡ 면적에 농약 오신수화제(저독성 4급·어독성 3급)와 청실홍실(저독성 4급·어독성 3급) 각각 1.7kg을 살포했다.

오신수화제는 어드마이어와 마찬가지로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 살충제로 꿀벌을 폐사시킨다. 남구는 대남대로, 독립로 총 3km 구간 가로수에는 어드마이어 6800㎖를 주사했다.

북구도 공원 13곳에 네오니코티노이드

계통 살충제인 ‘톡소리’(저독성 4급·어독성 3급, 3990g)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분석보고서에서 지적한 발암의심물질인 ‘베노밀’(저독성 4급·어독성 3급, 5605g)을 뿌렸다.

자미로, 하서로 등 가로수에는 어드마이어(수간주사 1200㎖), 코니도(107.5kg), 레피드킬(3kg) 등 꿀벌 폐사 주범 이마다클로프리드 성분 농약을 썼다.

광산구도 선운공원, 쌍암공원 등 공원 10곳, 가로수 7개 구간에 로벡틴, 어드마이어 등 농약을 2260mg 주사했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이 가로수 방제에 다량의 농약을 사용하는 것은 효과가 빨리 드러나는 데다 인력 및 예산의 효율성·편리성 때문이다.

박경희 광주전남녹색연합 사무국장은 “가로수나 공원에 뿌린 농약이 광주천 등으로 흘러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자치단체들이 일반 농약보다 상대적으로 생태에 적은 영향을 미치는 친환경 농약 등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경찰, 산단 내 비트코인 채굴업체 조사

광주와 전남 지역 산업단지에서 산단 조성 목적과 관련 없는 업체가 입주해 비트코인을 전문 채굴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7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전남 전남 모 산단을 찾아 이 산단에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입주했는지 조사했다.

비트코인 채굴은 자유업이지만 산단에 조성 목적과 관련 없는 비트코인 채굴만을 목적으로 한 업체가 입주해서는 안 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산단과 업체를 방문, 실제 비트코인을 채굴하는지, 채굴만을 목적으로 입주한 것인지를 살펴봤다.

경찰은 앞서 광주의 여러 산단을 방문, 산단 조성 목적과 관련 없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가 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업체에서는 평소보다 많은 전기요금이나 비트코인 채굴과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산단에는 조성 목적과 연관돼 사업비 일부가 지원되는 만큼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전기 등이 사용된다면 불법이다.

경찰 관계자는 “비트코인 광풍으로 산단에 관련없는 업체가 들어서거나 기존 업체가 채굴만을 목적으로 운영한다는嫌疑가 들어와 사실 확인 차원에서 방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채굴만을 목적으로 입주했는지, 전기세 등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는지 등 불법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채굴(mining)은 수백억대의 고성능 PC를 이용해 특정 연산 프로그램을 가동, 가상화폐를 생성하는 것을 말한다. 수많은 컴퓨터를 운영하는 데 전기료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전문 업자들은 산업용 전기 혜택이 있는 산단에 몰려 입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소방훈련 실전처럼 광주 북부소방서가 7일 임동 일신방직에서 화재예방과 초기 대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소방훈련을 하고 있다.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귀신처럼 돈냄새 맡는 도둑들

소파 밑 2억여원 아들이 훔쳐 노인들 장판 밑·장롱 등 보관해 수년간 현금 텀 절도범 적발도

어르신들이 은밀하게 돈을 감춰두거나 보관하는 집 안의 비밀장소가 털리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장판 밑, 장롱, 향아리 등은 도둑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표적이 되고 있다.

광주시 동구 산수동에 사는 조모(62)씨는 지난해 31일 소파 시트 밑을 보고 깜짝 놀랐다.

자신이 운영하던 숙박업소를 정리하고 받은 2억5000만원 중 1억8000만원이 감쪽같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조씨는 지난해 6월경부터 신문에 5만권을 감싸 소파 안쪽에 보관하고 있었다. 집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해서다.

다행히 둘째 아들(35)의 소행으로 밝혀졌지만, 경찰은 “절도범이었다면 앞서 11일 동부경찰에 절도 혐의로 불거진 서모(39)씨는 동구 한 철물점에 몰래 들어가 박모(여·54)씨가 아들 유학자금으로 장판 밑에 숨겨둔 현금

2000만원을 훔치기도 했다.

노인들이 장판 밑에 보관한 현금을 세어보거나 점검하지 않는 바람에 무려 10여년간 범행한 절도범도 있었다. 지난해 고형경찰에 붙잡힌 이모(42)씨는 2008년 8월부터 2017년 12월 8일까지 고형, 영광, 담양, 여수, 전북 순창 등 전남과 전북 일대를 순회하며 집에 사람이 있으면 정수기 판매원으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절도범으로 돌변해 83차례에 걸쳐 장판 밑, 장롱 안에 보관된 2억2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쳤다.

경찰 조사결과 일부 피해자들은 돈이 없어진 사실조차 몰랐다.

노인들의 장판 밑에 보관하는 현금은 습기 등으로 훼손돼 못쓰게 된다. 한국은행은 지난 2017년 모두 2155건의 손상화폐를 교환해줬다.

김재현 고형경찰 수사과장은 “노인들의 경우 장판 밑이나 장롱, 향아리 등 비교적 찾기 쉬운 곳에 현금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아 이것을 노린 절도범들의 범행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소액이더라도 현금은 가급적 은행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해야 하며 특히 이월 설 연휴 등으로 집을 비울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동거녀 폭행 후 불 지르고 자해소동 벌인 50대

목포경찰, 50대 검거 조사

전남 목포경찰은 7일 현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A(5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오전 7시 16분경 목포시 한 아파트에서 동거녀 B(50)씨를 폭행한 뒤 경찰이 출동하자 집 안에 불을 지르고 자해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가정불화로 다투며 폭행했고 B씨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자 라이터로

이불에 불을 붙이고 베란다로 달아났다.

A씨는 흥기를 목에 대고 다가오지 못하도록 자해소동을 벌이다가 오전 9시 25분경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 아래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고 전남청 위기협상대응팀과 광주청 경찰특공대 등 50여명을 동원해 A씨를 설득해 2시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가상화폐 투자 30대 숨진 채 발견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30대 회사원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서울 동작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오후 2시경 A(30)씨가 동작구 자신의 집에서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유족은 A씨 본인에게서 가상화폐에 투자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

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IT 분야 기업에 다니는 A씨는 평소 우울증 등 병력이 없는 점과 유족 및 친인의 진술 등으로 미루어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비판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경찰은 A씨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반아 정확한 가상화폐 투자 금액과 손실 규모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경매교육 (2월초 개강)

1) 이론 실전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기초이론 + 실전

2) 실전 투자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경매개조 + 실전경매+실전투자

3) 경매 평생반
▶ 매주개강 (오전반, 오후반) (특수경매, NPL부실채권)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학부터 매매입대, 개찰까지 원스톱 진행

경매물건 추천

① 화순군 도곡면 (무인텔) 감평가 38억7천 → 최저가억4천 1천
② 북구 양산동 (공장) 감평가 32억2천2백 → 최저가 14억 토지:1105평 건물:201평
③ 북구 문흥동 중흥아파트(24평) 감평가:1억3천3백 → 최저가:7천5백

[사무직 (여)경력 구함, 경매 부동산 관심자 환영]

010-6670-9800 062)382-55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1) 담양군 담양읍 (무인텔) 토지:1004평 건물:750평 감정:3억2천4백 → 최저:2억2천

2) 남구 행암동 (1층상가) 호천 대단위 아파트 (주차빌딩) 감정:1억4천4백 → 최저:1억4천4백

3) 광산구 수원지구 (근린주택) 감정 7억2천 → 최저 7억2천

4) 무안군 운남면 (노유자시설) 감정 9억 3천 → 최저4억 2천

5) 광산구 수원동 (1층 상가) 감평가 9억6천 → 최저가 6억7천

6) 남구 양림동 (주택) 감정:2억6천 7백 → 최저:1억8천7백

7) 남구 월산동 (근린주택) 감정:9천6백 → 최저9천6백

8) 화순군 남면 사평리 (주유소) 감정:5억 → 최저:3억8천

9) 광산구 수원동 (주차빌딩) 감정 9억3천 → 최저 6억5천

10) 북구 용봉동 (12층중 7층) 감정:6억5천 → 최저:2억3천

11) 전남 광양시 옥곡면 (임야) 토지:3306평 감정:3억1천 7백 → 최저:1억7천7백

A.P.T · 주택 · 공장 · 토지 (기타)

① 남구 진월동 한신 아파트 (31평) 감정 2억1천2백 → 최저 1억4천8백
② 서구 풍암동 금호타운 감정 1억9천 → 최저 1억 3천
③ 서구 풍암동 동부센트레빌아파트(36평) 감정 2억9천 → 최저2억
④ 남구 진월동 한신아파트 (34평) 감정 1억9천5백 → 최저 1억 3천6백
⑤ 북구 운암산아루레시안 (34평) 감정 2억5천 → 최저 1억 7천
⑥ 상무지구 갤러리 아파트 (75평) 감정 5억8백 → 최저 3억6천

⑦ 광산구 수원동 대반노블랜드아파트(56평) 감정 4억5천8백 → 최저 4억5천8백
⑧ 서구 마북동 (주택) 감정 1억3천 → 최저 9천1백
⑨ 북구 양산동 (공장) 감정 39억 → 최저 14억
⑩ 화순군 능주면 잠정리(대지) 감정 7백 → 최저 5백
⑪ 목포시 산정동(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⑫ 광산구 박호동 (토지) 감정 1억9천 → 최저5천5백

010-6670-9800 062)382-5500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시세가 1억 2천
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